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통찰적 지식인을 기대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수학과 통계학 컴퓨터 알고리즘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특히, 통계학을 전공하는 학자이며 동시에 자연과학자이다. 이대로 이런 지식의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 왔다.

인간과 이웃에게 초점 맞춰

존 브록만(John Brockman)이 <저술한 과학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을 만나다(The New Humanist-Science at the Edge)>를 보면 이탈리아의 두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와 미켈란젤로(1475~1564)가 언급되고 있다. 다빈치가 살았던 삶을 보면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이기도 하지만, 비행기, 헬리콥터, 로봇 등을 발명한 과학자, 도시설계, 공작기계 등을 제안한 공학자였다. 또한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린 화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건축가 또는 시인이기도 하였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분야의 지식에 정통하여 지적 네트워크가 발달한 지식인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이들의 지식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웃에게 열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인간이 화두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것인가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이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1762~1836)도 수원화성을 축조한 건축가, 거중기를 발명한 과학자, 목민심서와 같은 시류를 읽는 탁월한 눈을 가진 실학자였다. 그의 업적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것이다. 즉, 수원성을 건설하는 데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간편함과 편리성을 추구한 거중기의 발명과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목민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목민심서를 쓴 것이다.



글 최용석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yschoi@pusan.ac.kr

글쓴이는 한국통계학회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통찰력 지닌 지식인으로 키워줘야

오늘날 전공분야가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어 앞서 언급한 통찰적 지식인을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반도체,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발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원천 지식이 요구되며 이를 통찰하고 조정하는 지식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서비스 직종을 선호하는



사회적 풍토를 극복하고 이공계 특히, 기초연구 분야의 주가 되는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연과학 안에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 물리, 화학, 생물, 분석에 관련된 원천적 과학기술을 가진 작은 지식인들이 많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이들이 창의적이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편리성과 다양성을 지닌 과학기술을 가져다 줄 진정한 통찰력을 지닌 지식인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ST**

